

뉴질랜드 비즈니스 포럼 연설

존경하는 사이먼 아놀드 웰링턴 상의 회장,

리처드 위스 경험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금기 경험 위원장,

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뉴질랜드를 가장 가 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고 싶은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이 모두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를 선진국이고 국민소득이 높고, 그리고 작지만 매우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와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의사당을 보면서 매우 품격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의 모델을 본받아야 할 것이냐를 놓고 논쟁을 하면서 작지만 강한 나라를 자주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저는 뉴질랜드가 인구는 적지만 매우 강한 나라이고 품격 있

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토가 아름답고 기후도 좋은 편이지만, 우리 한국에 비해서 주변 시장과의 거리라든지 지리적 조건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뉴질랜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살고 높은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품격 높은 나라가 됐을까, 이 건 제가 돌아가서 오래 생각하면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오전에는 총리 각하와 장관들을 함께 만나 양국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전쟁 때 뉴질랜드가 6천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혈맹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양국 장관들은 IT, 농업, 식품·위생 관련 기술, 환경,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과학기술 등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FTA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했고, 미국·캐나다와 FTA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뉴질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차별적 대우,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 민간 차원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관한 공동 연구를 할 것입니다. 연구를 하게 되면 아마 뉴질랜드의 농업이 한국의 농업과 충돌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한국 농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뉴질랜드의 기타 상품들이 다른 나라의 상품과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결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그래서 양국 간 FTA 체결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리라

고 생각합니다.

FTA라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농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농업 인구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뉴질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민이나 유학, 관광 모두 한국에서 뉴질랜드 쪽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도 한국이 더 많이 삽니다. 결국 이것은 뉴질랜드 문명이 한국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 반대로 돈을 따지면 한국의 돈이 뉴질랜드로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서 우리 한국 상품을 좀더 사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총리 각하께는 한국 상품을 더 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물건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지 총리 각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우리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뉴질랜드 국민들이 많이 와서 한국의 동계올림픽을 함께 보고 즐겨 주시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동계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리도록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도 뉴질랜드의 IOC 위원들이 올림픽위원회에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올림픽 위원이 계시면 동계올림픽은 한국 평창에서 꼭 열리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조금 전에는 뉴질랜드의 영화 만드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파크 로드'라는 곳이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해서 영화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IT 산업 하면 한

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항상 자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화제작소에 가서 보니까 꼭 그렇게만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일반적 기술에 있어 우리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오늘 봤던 영상 산업에 적용되는 전자 기술, 디지털 기술, 그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또는 감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뉴질랜드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영화 산업은 아주 활발하게 뜨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영화 산업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전까지 완전한 시장경제라기보다는 관치경제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적어도 금융을 국가가 지배하는 불완전한 시장경제였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완전한 시장경제를 이루었고, 그 시장경제는 이제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경쟁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는 현저히 낮아졌고 경쟁력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의 규칙, 그리고 거래의 규칙은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움직이고 있고, 어디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체질 면에 있어서도 흔히 말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는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의 상품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국제사회로부터 개방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고, 오히려 한국이 자본을 가지고 금융이든, 대규모 인프라든, 또는 기술 투자든 능동적으로 해외에 자본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북부 지방에 인접해 있고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라든지, 한국 경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발전 단계로 봐서는 중국·일본 전체를 무대로 하는 경제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뉴질랜드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한 기업 숫자, 투자 건수, 그리고 총금액 등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뉴질랜드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에 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노동력이 아주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머리를 쓰는 노동력은 아주 우수합니다. 투자자에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두 나라 경제인들끼리 만나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셨는데, 제가 그 위에 보태어 긴 시간을 연설해서 죄송합니다. 뉴질랜드의 투자가 점점 많아지면 다음에 와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질랜드는 우리 한국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두 나라 경제인 간에 활발하게 교류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많은 투자를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기업인들도 뉴질랜드에 와서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